

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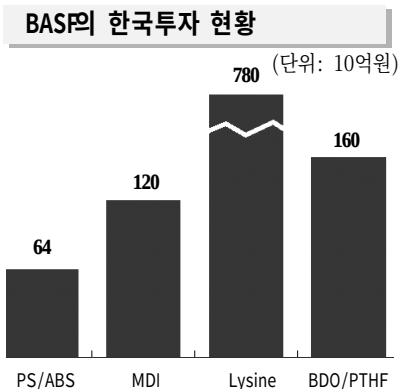
“BASF의 행태와 행보를 주목한다”

미국·영국식 자유경제체제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IMF 경제신탁통치를 초래한 한국 초유의 통화위기,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재정위기를 맞은 지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97년11월 「환란」이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을 당해 온 나라가 Moratorium을 들먹이고, 2000년대 초 선진국 진입이라는 환상이 깨어지는 대신 암울한 미래를 걱정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언 1년이 지난 것이다. 그 당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투자와 달러 유치에 온 힘을 기울였고, 정치권 및 재계를 중심으로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와중에서 한국투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다국적기업이 바로 BASF였고, 산업계에서는 BASF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BASF는 IMF체제 이후 대상의 Lysine 사업 및 50-50 합작기업 한화BASF의 Isocyanate, 효성BASF의 Styrenics 사업 등을 잇따라 인수했고, 최근에는 울산 소재 Poly THF(Tetrahydrofuran) 2만톤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99년에는 울산에 건설중인 BDO(Butandiol) 및 THF 5만톤 공장도 준공할 계획이다.

BASF는 Lysine을 비롯 Isocyanate, Styrenics 사업을 인수하는데 투자한 비용이 7억5000만달러(9640억원 상당), PTHF 및 BDO/THF 플랜트 건설에 1억2000만달러(1600억원)를 투자함으로써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노력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투자의 효율성이나 사업성을 평가, 관련사업을 인수하고 신규 플랜트 건설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BASF의 한국투자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BASF가 그동안 한국에서 보여온 사업운영 행태가 한국경제의 발전이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본질에 합당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이다.

BASF의 초기 투자사업인 PS 및 ABS의 경우 90년대 초부터 카르텔을 형성해 가공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과도한 증설로 가격폭락을 이끄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MDI 사업은 시장상황 악화에 따라 고전한 것을 인정한다해도 수급 및 가격담합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합리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BASF는 시장조작 및 카르텔 행위에 대해 스스로는 경영을 주도하지 않았고 한국 파트너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BASF는 타 다국적기업 합작

회사와는 다르게 BASF 관계자가 대표이사 부사장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 분명, 책임이 전혀 없다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화BASF 및 효성BASF 경영과정에서도 한국 및 국제시장의 흐름이나 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BASF의 세계전략에 충실한 나머지 무리한 마케팅 전략을 강요, 경영상의 착오와 손실을 초래한 점은 한국투자의 「공」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두 회사의 경영이 오랫동안 적자 또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한 것을 보아도 한국 파트너의 책임이라기보다는 BASF의 과오가 컸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red. Baumgartner BASF Korea 대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확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직접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단 반가운 일이다. BASF는 98년4월 중국이 중심이지만 아시아 지역에 100억 120억DM(53억 66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외환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는 반가운 것이 사실이고,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성하고 스스로의 수익과 한국의 경제발전에 동시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협력자」 자세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마

지 않는다.

BASF의 한국투자과 사업 운용행태를 주목하고 있음을 잊지않기 바란다.

<화학저널 2000/10/5>